

농어촌 복합 섬 지역 노인의 위생습관과 피부 소양감

전 미 양¹⁾ · 김 향 숙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의학의 발달과 경제 발전 그리고 출생률의 감소에 의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6년 10월 현재 노인인구의 비율은 9.5%이다. 이는 1996년 6.1%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4.4%로 노령 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노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기의 생활이 점차 길어지고 있지만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보호와 의료욕구 증가, 부양과 보호,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 부정적인 자아감, 우울감, 상실감, 절망감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신체적 변화에 의한 건강 문제이다(Song, Ha, You, & Park, 2008).

노인의 신체적 변화 중 피부의 변화는 얼굴, 어깨와 하지의 피하지방층이 감소하며 표피의 지질구조 변화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 분비가 감소하며 탄력섬유의 상실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며 피부가 이완되어 이중 턱이 되고 눈꺼풀도 처지게 된다. 또한 피부 색소의 침착으로 피부색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소위 저승꽃이라 불리는

노인성 반점이 생기게 되고 손톱과 발톱이 두꺼워지고 잘 부서진다(Kim et al., 2006). 노화에 의한 피부의 변화로 노인 중 75% 이상에서는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피부에 하얀 인설이 생기는 건성피부가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은 팔, 다리에 심하게 나타난다(Lyon & Fitzpatrick, 1993).

노인에서 피부건조증이 발생하면 소양감을 유발할 수 있다(Lee & Lee, 1998). 소양감은 긁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감각으로 노인에게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소양감 증상은 몸이 가려운 증상이며 주로 밤에 가려움이 심하며, 계절적으로는 건조한 겨울에 심해지고 더운 목욕을 한 후 더 소양감이 심해진다. 소양감이 심해서 계속 긁으면 피부에 습진과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2001).

노인에게 소양감을 유발하는 피부 건조증의 주원인이 노화인 경우는 완치가 매우 힘들고 수분과 피지의 부족으로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부건조증이 심하면 목욕의 횟수를 줄이고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며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연고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약물에 의존하기 보다는 생활환경이나 위생습관에 유의한다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2001).

피부의 노화현상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위생습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개인위생이란 건강을 유지하는 자가 간호로 신체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증진시키는 청결함과 동시에 몸치장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목욕 시간 및 횟수, 머리감기 횟수, 칫솔질 횟수 등과 같은 개인위생 실

주요어 : 노인, 위생습관, 소양감

1) 극동정보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myjeon68@hanmail.net)

2) 남해군보건소 보건진료원

접수일: 2008년 6월 2일 수정일: 2008년 7월 11일 게재확정일: 2008년 7월 28일

천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Yang et al., 2007).

위생 습관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외에도 정서와 사기를 높여주는 효과가 크다. 목욕이나 샤워, 칫솔질 등 위생활동은 그 행동 자체가 건강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식욕을 증진시키고 사교성을 높여 노년기 정서와 활력을 크게 높여준다. 또한 역으로 사교활동이 위생활동을 높여주기도 하는데 누군가와의 만남에 대한 의무감(예: 주기적인 모임, 만날 약속 등)이 외모를 가꾸기 위한 위생활동을 촉진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노년기의 위생활동은 외부지향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외부지향적인 행동은 위생활동을 촉진시키므로 이 두 가지 측면은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상호보완적 주요 과제이다(Ham, 2002).

농어촌 복합 섬지역의 경우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샤워나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위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노인들의 위생활동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노인의 위생활동을 증진시키고 피부소양감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위생 및 피부소양감에 대한 기초자료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 복합 섬 지역 노인의 위생활동을 증진시키고 피부 소양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맞춤형 위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위생습관과 피부 소양감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복합 섬 지역 노인의 위생습관과 피부 소양감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어촌 복합 섬 지역 노인의 위생을 증진시키고 피부 소양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의 위생습관을 파악한다.
- 노인의 피부 소양감(소양감의 부위와 정도)을 파악한다.
-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생습관 및 피부 소양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농어촌 복합 섬 지역 노인의 위생습관과 피부 소양감에 대해 조사한 서술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일개 농어촌 복합 섬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 않으며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있고 연구자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4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위생습관

위생습관이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자가간호행위로 본 연구에서는 칫솔질, 세수, 머리감기, 목욕,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대변 후 항문 씻기, 속옷 갈아입기, 손발톱 깎기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Lee (1983)가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Kim, Kim과 Kim (1989)와 Ham (2002)의 도구를 참조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일차 개발된 설문지는 농어촌 섬 지역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한 설문지는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 피부 소양감

피부 소양감이란 굵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감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한 부위 이상에서 가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설문지를 통해 피부 소양감 유무, 정도와 부위를 조사하였다. 피부 소양감은 유, 무로 조사하였으며 소양감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피부 소양감 부위와 정도를 조사하였다. 소양감의 정도는 약간 가렵지만 긁지는 않는다, 가려워서 긁는다, 가려워서 긁지만 상처가 나지 않는다, 가려워서 긁으며 피부가 벗겨지거나 상처가 난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6년 3월-5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노인이 국문해독이 가능한 경우는 연구자의 감독하에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국문해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일대일 면접법을 통해 대상자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위생습관, 피부 소양감 유무, 부위 및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생습관 및 피부 소양감의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대상자 중 남성 노인 28.6%, 여성 노인 71.4%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6.5세이었고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5-84세가 6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85세 이상 28.2%, 65-74세 10.9%순이었다. 교육 정도는 무학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초등학교 졸업 21.1%, 중학교 졸업 3.9%, 고등학교 졸업 2.7% 순이었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상태는 보통이 6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나쁨 28.6%, 좋음 5.3%순이었다. 가족 형태는 부부가족이 43.0%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 가족 36.2%, 배우자 없이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18.0%, 부부와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2.9%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12)

Variables	Category	n	%	M±SD
Gender	Male	118	28.6	
	Female	294	71.4	
Age (years)	65-74	45	10.9	76.5±5.62
	75-84	251	60.9	
	Above 85	116	28.2	
Education	None	253	61.1	
	Elementary	133	21.1	
	Middle	16	3.9	
	High & Over	11	2.7	
Economy	Good	22	5.3	
	Average	272	66.0	
	Poor	118	28.6	
Family type	Alone	149	36.2	
	Spouse	177	43.0	
	Spouse & other	12	2.9	
	Other	74	18.0	

위생습관

대상자의 위생습관은 구강위생, 씻기, 의복, 손발톱 관리로 구분하였다. 구강위생은 일일 칫솔질 횟수, 아침 식사 후 칫솔질, 저녁 식사 후 칫솔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상자의 일일 칫솔질 평균 횟수는 2.10회이었다. 일일 칫솔질 횟수는 2

Table 2. Hygiene Activity (n=412)

Variables	Category	n	%	M±SD	
Oral hygiene	Brushing teeth (day)	3 or more	45	10.9	2.10±.58
		2	285	69.2	
		1 or less	82	19.9	
	Brushing teeth in morning	Yes	393	95.4	
		No	19	4.6	
	Brushing teeth at night	Yes	383	93.0	
No	29	7.0			
Washing	Washing face (day)	3 or more	27	6.6	2.19±.54
		2	282	68.4	
		1 or less	103	25.0	
	Shampoo (week)	7 or more	8	1.9	
		2-3	286	69.4	
		1 or less	118	28.6	
	Bathing (month)	4 or more	160	38.8	
		2	216	52.4	
	Wash hands after toilet	1 or less	36	8.8	
		Yes	407	98.8	
No	5	1.2			
Wash anus after defecation	Yes	94	22.8		
	No	318	77.2		
Clothes	Change underwear (week)	7 or more	109	26.4	
		2-3	173	42.0	
		1 or less	110	31.6	
Nail	Cut nails (month)	4 or more	196	47.6	
		2	154	37.4	
		1 or less	62	15.0	

회가 6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회 이하 19.9%, 3회 이상 10.9%순이었다. 아침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는 대상자는 95.4%, 저녁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는 대상자는 93.0%이었다.

씻기와 관련된 위생습관은 세수, 머리감기, 목욕,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대변 후 항문 씻기로 구분하였다. 일일 세수 평균 횟수는 2.2회이었으며 횟수는 2회가 68.4%로 가장 많았고 1회 이하 25.0%, 3회 이상 6.6%순이었다. 일주일에 머리감는 횟수는 2-3회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는 1회 이하 28.6%, 7회 이상 1.9%로 나타났다. 매월 목욕 횟수는 2회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회 이상 38.8%, 1회 이하 8.8%순이었다.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는 씻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8.8%이었고 대변 후 항문 씻기는 22.8%로 나타났다.

의복과 관련된 위생습관은 일주일에 속옷 갈아입는 횟수로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의 속옷 갈아입는 횟수는 2-3회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회 이하 31.6%, 7회 이상 26.4%순이었다. 손발톱관리에서 손발톱을 자르는 횟수를 살펴본 결과, 매월 4회 이상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는 2회 37.4%, 1회 이하 15.0%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피부 소양감

대상자의 피부 소양감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았다. 대상자 412명 중 소양감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24.0%(99명)이었다. 피부 소양감 부위와 정도는 피부 소양감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피부 소양감 부위는 한 부위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세 부위 이상 29.3%, 두 부위 27.3%순이었다. 구체적인 피부 소양감 부위는 중복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등과 허리가 2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는 다리와 발 24.2%, 팔과 전신이 각 22.2%, 가슴과 배 8.0%, 생식기 부위 7.1%, 엉덩이 4.0%, 머리 3.0%순이었다.

피부 소양감 정도는 가려워서 긁는다가 70.7%로 가장 많았으며 가렵지만 긁지는 않는다 19.2%, 긁지만 피부가 벗겨지지는 않는다 8.1%, 긁어서 피부가 벗겨진다 2.0%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생 습관과 소양감의 차이

연령에 따른 위생 습관과 소양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칫솔질($\chi^2=25.624, p=.000$), 세수($\chi^2=42.202, p=.000$), 머리감기($\chi^2=53.480, p=.000$), 목욕($\chi^2=19.132, p=.001$),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chi^2=7.386, p=.025$), 손발톱 자르기($\chi^2=19.111, p=.001$)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대변 후 항문 씻기($\chi^2=2.632, p=.268$), 피부 소양감($\chi^2=1.670, p=.434$)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위생습관 중 칫솔질, 세수, 머리감기, 목욕은 85세 이상 군이 65-74세와 75-84세군보다 위생활동 횟수가 많았으나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와 속옷 갈아입기는 65-74세군이 다른 연령군보다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위생습관과 피부 소양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칫솔질($\chi^2=29.158, p=.000$), 세수($\chi^2=29.961, p=.000$),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chi^2=6.532, p=.025$), 대변 후 항문 씻기($\chi^2=15.017, p=.000$), 속옷 갈아 입기($\chi^2=126.498, p=.000$), 손발톱 자르기($\chi^2=15.883, p=.000$)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머리 감기($\chi^2=5.562, p=.062$)와 목욕($\chi^2=.412, p=.814$)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위생습관 중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대변 후 항문 씻기, 속옷 갈아입기와 손발톱 자르기의 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칫솔질, 세수, 머리 감기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피부 소양감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노인은 28.2%, 남성 노인 13.6%로 성별($\chi^2=9.92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른 위생습관과 피부 소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목욕($\chi^2=21.669, p=.000$), 속옷 갈아입기($\chi^2=10.621, p=.031$), 손발톱 자르기($\chi^2=14.373, p=.000$)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칫솔질($\chi^2=5.223, p=.265$), 세수($\chi^2=2.943, p=.567$), 머리 감기($\chi^2=5.786, p=.216$),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chi^2=.479, p=.787$), 대변 후 항문 씻기($\chi^2=3.236, p=.198$)와 피부 소양감($\chi^2=2.423, p=.293$)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 형태에 따른 위생 습관과 피부 소양감의 차이를 살펴 보면 칫솔질($\chi^2=11.008, p=.004$), 속옷 갈아입기($\chi^2=.20458, p=.000$)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세수($\chi^2=1.016, p=.602$), 머

Table 3. Characteristics of Elders Related to Pruritus

(n=99)

Variables	Category	n	%
Frequency of pruritus area	1 area	43	43.4
	2 areas	27	27.3
	Over 3 areas	29	29.3
Area of pruritus*	Head	3	3.0
	Face, Neck	12	12.1
	Chest, abdomen	8	8.0
	Back, waist	26	26.3
	Buttocks	4	4.0
	Arm, hands	22	22.2
	Leg, Feet	24	24.2
	Genital areas	7	7.1
	Whole body	22	22.2
	Grade of pruritus	A little itching but never scratch	19
Itching and scratching		70	70.7
Scratching cannot beat itching		8	8.1
Scratching enough to peel off the skin		2	2.0

*Multiple response.

Table 4. Difference of Hygiene Activities and Pruritu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n=412)

Variables	Category	Age			χ^2	p	Gender		χ^2	p
		65-74	75-84	≥85			Male n (%)	Female n (%)		
Brushing teeth (day)	3 or more	16(10.3)	51(22.7)	15(46.9)	25.624	.000	42(35.6)	40(13.6)	29.158	.000
	2	117(75.5)	153(68.0)	15(46.9)			71(60.2)	214(72.8)		
	1 or less	22(14.2)	21(9.3)	2(6.3)			5(4.2)	40(13.6)		
Washing face (day)	3 or more	14(9.0)	73(32.4)	16(50.0)	42.202	.000	51(43.2)	52(17.7)	29.961	.000
	2	124(80.0)	143(63.6)	15(46.9)			63(53.4)	219(74.5)		
	1 or less	17(11.0)	9(4.0)	1(3.1)			4(3.4)	23(7.8)		
Shampoo (week)	7 or more	19(12.3)	72(32.0)	23(71.9)	53.480	.000	42(35.6)	72(24.5)	5.562	.062
	2-3	129(83.2)	149(66.2)	8(25.0)			72(61.0)	214(72.8)		
	1 or less	7(4.5)	4(1.8)	1(3.1)			4(3.4)	8(2.7)		
Bathing (month)	4 or more	7(4.5)	24(10.7)	5(15.6)	19.132	.001	11(9.3)	25(8.5)	.412	.814
	2	71(45.8)	123(54.7)	22(68.8)			64(54.2)	152(51.7)		
	1 or less	77(49.7)	78(34.7)	5(15.6)			43(36.4)	117(39.8)		
Wash hands after toilet	Yes	154(99.4)	223(99.1)	30(93.8)	7.386	.025	114(96.6)	293(99.7)	6.532	.025
	No	1(0.6)	2(0.9)	2(6.3)			4(3.4)	1(0.3)		
Wash anus after defecation	Yes	42(27.1)	46(20.4)	6(18.8)	2.632	.268	12(10.2)	82(27.9)	15.017	.000
	No	113(72.9)	179(79.6)	26(81.3)			106(89.8)	212(72.1)		
Change of underwear (month)	30	50(32.3)	54(24.0)	5(15.6)	13.655	.008	9(7.6)	100(34.0)	126.498	.000
	15	69(44.5)	94(41.8)	10(31.3)			24(20.3)	149(50.7)		
	4 or less	36(23.2)	77(34.2)	17(53.1)			85(72.0)	45(15.3)		
Cut of nails (month)	4 or more	73(47.1)	110(48.9)	13(40.6)	19.111	.001	40(33.9)	156(53.1)	15.883	.000
	2	68(43.9)	79(35.1)	7(21.9)			50(42.4)	104(35.4)		
	1 or less	14(9.0)	36(16.0)	12(37.5)			28(23.7)	34(11.6)		
Pruritus	Yes	36(23.2)	58(25.8)	5(15.6)	1.670	.434	16(13.6)	83(28.2)	9.929	.001
	No	119(76.8)	167(74.2)	27(84.4)			102(86.4)	211(71.8)		

Table 5. Difference of Hygiene Activities and Pruritus according to Economy and Family Type

(n=412)

Variables	Category	Economy			χ^2	p	Family type		χ^2	p
		Good n (%)	Average n (%)	Poor n (%)			Alone n (%)	Spouse or others n (%)		
Brushing teeth (day)	3 or more	3(15.0)	59(21.7)	20(16.7)	5.223	.265	17(11.4)	65(24.7)	11.008	.004
	2	15(75.0)	189(69.5)	81(67.5)			83(55.7)	173(65.8)		
	1 or less	2(10.0)	24(8.8)	15.8)			56(37.6)	25(9.5)		
Washing face (day)	3 or more	4(20.0)	63(23.2)	36(30.0)	2.943	.567	33(22.1)	70(26.6)	1.016	.602
	2	14(70.0)	190(69.9)	78(65.0)			106(71.1)	176(66.9)		
	1 or less	2(10.0)	19(7.0)	6(5.0)			10(6.7)	17(6.5)		
Shampoo (week)	7 or more	4(20.0)	71(26.1)	39(32.5)	5.786	.216	37(24.8)	77(29.3)	1.029	.598
	2-3	14(70.0)	194(71.3)	78(65.0)			107(71.8)	179(68.1)		
	1 or less	2(10.0)	7(2.6)	3(2.5)			5(3.4)	7(2.7)		
Bathing (month)	4 or more	1(5.0)	18(6.6)	17(14.2)	21.669	.000	10(6.7)	26(9.9)	1.669	.434
	2	4(20.0)	142(52.2)	70(58.3)			83(55.7)	133(50.6)		
	1 or less	15(75.0)	112(41.2)	33(27.5)			56(37.6)	104(39.5)		
Wash hands after toilet	Yes	20(100.0)	269(98.9)	118(98.3)	.479	.787	149(100.0)	258(98.1)	2.867	.164
	No	0(0.0)	3(1.1)	2(1.7)			0(0.0)	5(1.9)		
Wash anus after defecation	Yes	7(35.0)	65(23.9)	22(18.3)	3.236	.198	37(24.8)	57(21.7)	.539	.466
	No	13(65.0)	207(76.1)	98(81.7)						
Change underwear (month)	30	7(35.0)	67(24.6)	35(29.2)	10.621	.031	51(34.2)	58(22.1)	20.458	.000
	15	10(50.0)	105(38.6)	58(48.3)			71(47.7)	102(38.8)		
	4 or less	3(15.0)	100(36.8)	27(22.5)			27(18.1)	103(39.2)		
Cut nails (month)	4 or more	17(85.0)	123(45.2)	56(46.7)	14.373	.006	80(53.7)	116(44.1)	3.823	.148
	2	3(15.0)	100(36.8)	27(22.5)			51(34.2)	103(39.2)		
	1 or less	0(0.0)	39(14.3)	23(19.2)			18(12.1)	44(16.7)		
Pruritus	Yes	6(30.0)	59(21.7)	34(28.3)	2.423	.298	51(34.2)	8(18.2)	.923	.455
	No	14(70.0)	213(78.3)	86(71.7)			98(65.8)	36(81.8)		

리감기($\chi^2=1.029$, $p=.598$), 목욕($\chi^2=1.669$, $p=.434$),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chi^2=2.867$, $p=.164$), 대변 후 항문 씻기($\chi^2=.539$, $p=.466$), 손발톱 자르기($\chi^2=3.823$, $p=.148$), 피부 소양감($\chi^2=.923$, $p=.455$)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논 의

우리나라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주거환경(화장실, 욕실, 주방)이 개선되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위생 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은 도시처럼 주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과거의 생활습관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생 활동 실천율이 저하되어 있다. 노인의 위생 활동저하는 피부 소양감과 같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존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위생 활동을 증진시킨다면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 복합 섬 지역 노인의 위생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위생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복합 섬 지역 65세 이상 노인 412명을 대상으로 위생 습관과 피부 소양감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며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농어촌 복합 섬 지역 노인의 위생 습관 중 가장 실천도가 높은 항목은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세수하기, 칫솔질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실천도가 낮은 항목은 대변 후 항문 씻기, 목욕, 머리감기, 속옷 갈아입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화장실 사용 후 항문 씻기는 20% 정도로 매우 낮았다. 이는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는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손 씻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실천율도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화장실 사용 후 항문 씻기는 최근 그 중요성이 거론되면서 비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농어촌은 실외 화장실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실내 화장실을 사용한다하더라도 비데 설치율이 낮으며 대변 후에 항문을 씻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가진 비율이 낮고 화장실 사용 후 항문 씻기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아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항문은 생김새가 움푹 파인 형태이므로 대변과 질의 분비물로 인하여 쉽게 오염되고 이 오염물질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가려움증을 일으킨다(Lyon & Fitzpatrick, 1993). 즉 항문 주위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항문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 특히 배변 후에는 항문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농어촌 노인을 위한 위생증진 프로그램에

서는 노인들이 배변 후 항문을 씻도록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강위생 중 일일 칫솔질 횟수는 2.10회로 Cho (2004)의 1.76회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저녁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보다 아침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높은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의치 착용률이 높은 노인의 일일 칫솔질 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칫솔질 실천율이 낮은 것을 의미함으로 위생증진프로그램에서는 칫솔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위생 습관이 세수, 칫솔질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활동에 치중되어 있고 목욕, 머리감기 등 외모를 가꾸는 것과 관련된 위생활동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Seo (2000)의 연구에서 농촌 노인은 영양 및 식생활관리, 음주와 흡연 절제 등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Seo (2000)의 연구에서 농촌 노인과 비교하여 도시 노인은 화장, 이발이나 미용, 옷을 사거나 맞추는 일, 목욕이나 샤워 등 외모를 관리하는 위생관련 실천에 더 치중하면서 노후 정서와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도시 노인보다 농어촌 노인은 지역적으로 목욕 및 미용 시설이 부족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으며 사회활동의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농어촌 노인의 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위생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위생, 씻기, 의복 관리, 손발톱 관리 등 노인의 위생 활동이 낮게 나타난 것은 노화에 의해 신체 기능이 감소하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목욕, 옷 입기, 걷기 등의 위생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Gill, Guo, & Allore, 2006).

본 연구에서 피부 소양감을 느끼는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노인은 수분과 피지의 감소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습진성 피부염을 일으키지 않고도 심한 소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노인의 피부 소양증 발생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으나 노인 피부에서 표피 장벽에 손상이 생겨 자극성 물질이 피부내로 침투하여 소양증을 일으킨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Gilchrest, 1993). 본 연구에서 소양감이 있는 노인 중 소양감 때문에 피부를 긁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로 매우 높았다. 만약 피부 소양증이 심하여 긁으면 피부가 벗겨질 수 있으며 이는 이차 감염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소양감이 심하거나 피부에 이차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부진피질호르몬제를 도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Lee, 1998; Song, 2001; Kang, 2006).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과 위생습관 및 피부 소양감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칫솔질과 세수하기를 제외하면 남성 노인의 위생활동 실천율이 여성 노인보다 유의하게 낮은 반면 피부 소양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의 위생관련 활동을 조사한 Seo (2000)의 연구에서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위생관련 활동의 실천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 유의하다. 남성 노인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식사, 빨래, 청소 등 위생과 관련된 가사활동을 여성에 의존하며 여성보다 외모를 덜 중요시하는 경향 때문에 남성의 위생관련 활동의 실천율이 여성 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생습관 중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노인보다 칫솔질과 속옷 갈아입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 가족이 있는 노인은 동거 가족이 없는 노인보다 냄새나 외형적인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노인의 위생습관은 거주 지역, 연령, 성별에 따라, 피부 소양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위생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경제적, 지리적 여건과 함께 노인의 연령,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을 위한 위생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인의 위생습관 및 피부 소양감을 조사한 서술연구로 일개 농어촌 복합 섬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412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6년 3월-5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노인이 국문해독이 가능한 경우는 연구자의 감독하에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국문해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일대일 면접법을 통해 노인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위생 습관, 피부 소양감 유무, 부위 및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생 습관과 피부 소양감의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자의 위생 습관은 구강위생, 씻기, 의복, 손발톱 관리로 구분하였으며 대상자의 일일 칫솔질 평균 횟수는 2.10회이었으며 일일 칫솔질 횟수는 2회가 69.2%로 가장 많았다. 씻기와 관련된 위생 습관은 세수, 머리감기, 목욕,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대변 후 항문씻기로 구분하였으며 일일 세수 평균 횟수는 2.2회이었으며 횟수는 2회가 68.4%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머리감는 횟수는 2-3회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매일 목욕 횟수는 2회가 52.4%로 가장 많았다. 화장실 사

용 후 손씻기는 씻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8.8%이었고 대변 후 항문 씻기는 22.8%로 나타났다.

의복과 관련된 위생 습관은 일주일에 속옷 갈아입는 횟수로 조사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일주일에 속옷 갈아입는 횟수는 2-3회가 42.0%로 가장 많았고 손발톱을 자르는 횟수는 매월 4회 이상이 47.6%로 가장 많았다.

둘째, 피부 소양감은 24.0%가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피부 소양감 부위는 한 부위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세 부위 이상 29.3%, 두 부위 27.3%순이었다. 구체적인 피부 소양감 부위는 등과 허리, 다리와 발, 팔, 전신 순이었다. 피부 소양감 정도는 가려워서 긁는다가 70.7%로 가장 많았다.

셋째, 연령에 따라 칫솔질, 세수, 머리감기, 목욕,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손발톱 자르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칫솔질, 세수,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대변 후 항문 씻기, 속옷 갈아 입기, 손발톱 자르기, 피부소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라 목욕, 속옷 갈아 입기, 손발톱 자르기가 동거 가족에 따라서는 칫솔질과 속옷 갈아입기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위생습관 및 피부 소양감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위생습관과 피부 소양감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위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 Cho, G. S. (2004). *The effect of general health & the life style influence to the oral health for seni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 Gill, T. M., Guo, Z., & Allore, H. G. (2006, Oct). The epidemiology of bathing disability in older persons. *J Am Geriatr Soc*, 54(10), 1524-1530.
- Gilcrest, B. A. (1993). *Aging of skin*. In Fitzpatrick, T.B.(ed):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McGraw-Hill Co., New York, 1993, 153-158.
- Ham, J. H. (2002, Spring). A study on sanitation behavior styles of the younger elderly, a probable influential factors on congregate residence. *Korean Soc of Welf for the Aged*, 235-250.
- Kang, J. S. (2006). Therapy and prevention of dry skin in elderly. *Lifelihood of Elder*, 166, 33-35.
- Kim, K. B., Go, S. H., Kim, N. C., Kim, M. Y., Kim, M. Y., Kim, Y. K., et al. (2006). *Disease management of elderly II*. Seoul: Hyunmoonsa.
- Kim, K. J., Kim, Y. L., & Kim, I. O. (1989). A study on the

- knowledge and practice to personal hygiene of aged men in urban area. *The Korean Gerontol Soc*, 6, 53-78.
-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2001). *Dermatology*. Seoul;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Estimation of the prospect population*. Retrieved January 31, from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b site: <http://www.nso.go.kr.htm>
- Lee, J. J. (1983). *A research on the knowledge and practice of personal hygiene of some aged urban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 H., & Lee, C. W. (1998). Clinical aspects of dry skin. *Hanyang J Med*, 18(1), 65-72.
- Lyon, N. B., & Fitzpatrick, T. B. (1993). *Geriatric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New York: McGraw-Hill Co., 1993, 2962-2980.
- Song, H. J. (2001). Dry skin. *J Korean Med. Assoc.*, 44(11), 1196-1204.
- Song, M. S., Ha, Y. S., You, S. J., & Park, Y. H. (2008). *Geriatric Nursing(Rev. e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Co.
- Seo, I. S. (2000). Health Knowledge level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the elderly. *The Korean Gerontol Soc*, 20(2), 1-28.
- Yang, S. H., Son, Y. H., Baek, H. J., Won, J. S., Yu, J. H., & Jeon, M. Y., et al. (2007). *Basic Nursing*. Seoul: Hyunmoonsa.

A Study on Hygiene and Skin Pruritus in Rural Elderly People

Jeon, Mi Yang¹⁾ · Kim, Hyang Sook²⁾

1) Associate Professor, Keukdong College, 2) Health Practitioner, Namhae-gun Health Center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data for a hygiene promotion program for elders living on rural islands. **Metho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Results:** Most of the elders reported brushed their teeth and washing their faces twice a day. For other types of washing, 98.8% of reported washing their hands after the toilet and 22.8% reported washing their anus after defecation. Most of the elders reported changing their underwear two to three times a month and cutting their nails more than four times a month. Itchiness was reported by 24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for teeth brushing, face washing, shampooing, bathing, washing hands after the toilet, and cutting nails. According to s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eth brushing, face washing, washing hands after using the toilet, washing anus after defecation, changing underwear, cutting nails, and feeling itchy. The eld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thing, changing underwear, and cutting nails according to subjective economic status.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eth brushing and changing underwear when they lived with their families.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a proper hygiene promotion program for the elderly, their age, sex, and physical condition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their environmental, economical, and geographical condition.

Key words : Elders, Pruritus, Hygien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eon, Mi Yang
 Keukdong College
 154, Danpyeong-li, Gangok-Myu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367-703, Korea
 Tel: 82-43-879-3429 Fax: 82-43-879-3426 E-mail: myjeon68@hanmail.net